

美·中 정상 “北 추가도발 안된다”

남북간 대화 촉구 등 41개항 공동성명 발표 파트너십 구축 합의...위안화 절상·인권 이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신뢰와 호혜에 기초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양국 관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양국간의 협력 관계 확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군사 및 민간분야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등 총 41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에도 좋은 일로,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은 미국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대하고, 점증하는 공동의 책무를 나눠 갖기로 하는 등 양자관계에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국제 안보분야의 최대관심사인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목표이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며 "양국은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

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무라늄 농축 계획에 대해 '우려(關切)'를 표시하고, '핵없는 세상'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해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조속한 가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덴마크 코펜하겐과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회의에서 구축된 진전을 토대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

감하고,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설치 및 풍력,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을 450억달러 늘리고, 미국내에 23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패키지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양국간 교역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시장에 의해 좀더 평가절상을 쪽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위안화 환율 개혁과 환율 신축성 제고, 내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선에서 위안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중국의 인권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티베트의 정신택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의 대표들이 만나 그들의 종교 유지 및 문화적 정체성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양국은 일단 오는 5월 제3차미·중 전략경제대화 이전에 양국간 인권대화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후 주석은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지만, 나라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협뉴스



후진타오(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장에 도착해 버락 오바마(오른쪽)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 /연협뉴스

여수市 작년수출 216억달러 '전국 4위'

영암 郡단위 2위...광주 60억달러 흑자 기록

지난해 여수시의 수출실적이 전국 시(市) 가운데 4위를 기록했고, 영암군과 해남은 군(郡) 단위로 2위와 8위를 각각 기록하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조사한 '2010 지자체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 수출실적은 216억7600만달러로 전국 시 가운데 아산, 구미, 거제에 이어 4위로 전년도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영암은 29억4900만달러, 해남은 6억5300만달러로 군별 순위에서 각

각 2위와 8위를 기록했다.

16개 시·도별로는 전남이 304억 1600만달러로 7위, 광주는 115억8천 100만달러로 10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광주·전남이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였다.

특히 무역수지는 광주시의 경우 승용차, 반도체부품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60억29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6위로 '알짜 교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천안·서산지역의 수출호조로

가장 많은 29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2009년 3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이어 경남, 경북, 울산, 전북 등의 순이었으며 전남은 전년도에 이어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가장 좋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전년보다 47.8% 증가한 857억달러로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2009년 1위였던 울산(714억달러)은 2위로 밀려났고,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아산시,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해남군 "원전유치 안한다" 군민·군의회 반대 뜻 존중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 접수를 한 달 앞두고 해남군이 20일 원전을 유치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해남군의회가 전날 원전 유치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이후 하루만이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20일 '해남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군의회가 한국군수력원자력부와 가동 중인 원전을 방문하고 군민 의견을 들어 원전 유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결론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원전 유치는 군민의 화합 분위기 속에서 결정돼야 하고 군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원전 유치 찬·반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군민과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우치공원 민자유치에 금호리조트 1곳 참여

광주시는 20일 "광주패밀러랜드와 우치동물원이 있는 우치공원 리모델링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나선 가운데 최근 제안서 공모에 기존 광주패밀러랜드 위탁운영자인 금호리조트 주식회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6일 제안서 평가 후 1차례 더 사업자 공모를 거쳐 올 상반기 내 민간자본 투자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리조트 측은 오는 2017년까지 330억원을 투입해 광주패밀러랜드를 리모델링하고, 우치동물원은 광주시가 자체재원을 마련해 시설을 개선한 뒤 위탁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순천 경전선 복선전철 조기 추진을"

광주·순천광양·목포·여수상의

광주와 순천광양·목포·여수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20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광주~순천 경전선 복선전철화를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 상의 대표들은 이날 국토해양부 방문해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협의안'에서 2021년 이후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광주~순천 경전선 복선전철화를 2015

년 이전 착수대상 사업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철도망인 경전선의 선로가 남아 광주지역 수출화물을 철도를 이용해 부산항으로 옮기려면 멀리 대안으로 돌아가는 실정이고, 부산·경남지역 철도화물도 경전선을 이용해 광주·전남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영호남 교류협력 활성화와 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주~순천 경전선 복선전철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서라면...

국민 30% "추가 재정부담 의향"

국민 10명 중 3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로 재정 부담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재정 부담은 곧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보육비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와 고품자용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해법으로 꼽았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사회적인 지원책을 대폭 늘려줄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 '더 할 의향이 없다'는 답이 69.5%였으나 '더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30.5%에 달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 배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78.7%에 달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31.3%)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19.0%)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노후 세대에 대한 부담 책임에 대해 '각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인생에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0%로 절대적이었다. /연협뉴스

■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先 남북대화 後 6자회담' 로드맵 확인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역대 집사의 양대축인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큰 틀의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계기다.

미·중 공동성명의 핵심은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로 압축된다. 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6자회담 재개 흐름

을 좌우하는 중심적 변수로 자리잡게 된다는 의미다.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남북이 나서서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길을 닦으라는 미·중

의 일치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의제화하고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정부분 투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또다른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무라늄 농축 프로그

램(UEP)에 대한 공식적 우려표명이다. UEP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다는 직접적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성격규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 양국의 일치된 속내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남북 북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협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